

TSAG/ITU-T 제1차 회의

- 박기식** · TTA 표준총회 부의장
ITU-T TSAG Vice Chairperson, WP3/TSAG Chairman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센터장
- 손 홍** · TTA 기획전략특별위원회 작업방법전문위원회 의장
TTA 기획조사실 동향조사부 부장
- 구경철** · TTA 기획전략특별위원회 EDH 전문위원회 의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팀장
- 박종봉** · TTA 기획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재무간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I. 회의개요

- 회의명 : The 1st Meeting of the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TSAG) (Geneva, 17 ~ 13 March 2001)
- ITU-T TSAG 2001년 3월(제1차) 회의 국가대표단 및 SIO/ROA 회원 :
 - 국가 수석대표 : 하성호(정보통신부, 서기관)
 - 국가대표단 : 김용수(정보통신부, 제네바, 서기관), 박기식(ETRI 책임연구원/표준연구센터장, TSAG Vice Chairman, WP3

Chairman), 손 홍(ETRI 선연), 박종봉(ETRI 연구원), 김성권(TTA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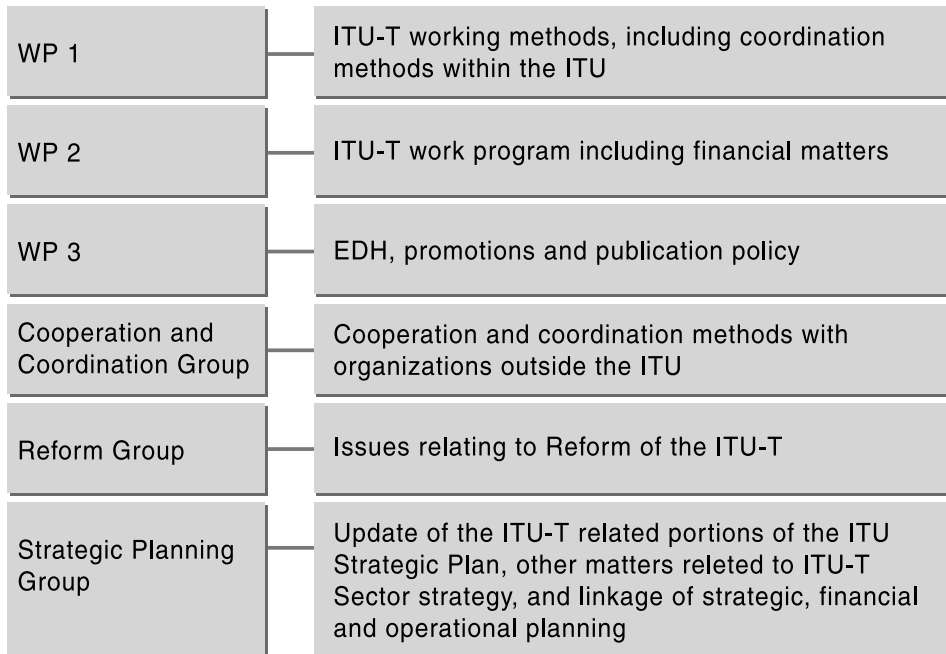
- ROA : 이재섭(KT, 제네바 사무소), 김구수(KT)
- SIO : 구경철(ETRI 선연)
- 회의 참석규모(TD/66)
- 25개국 120여 명(회원국/ROA/SIO, ITU-T/R/D 사무국 직원 포함)
- 회의의제(Agenda) 및 관련 문서 : TD/3

II. 회의결과 요약

1. 전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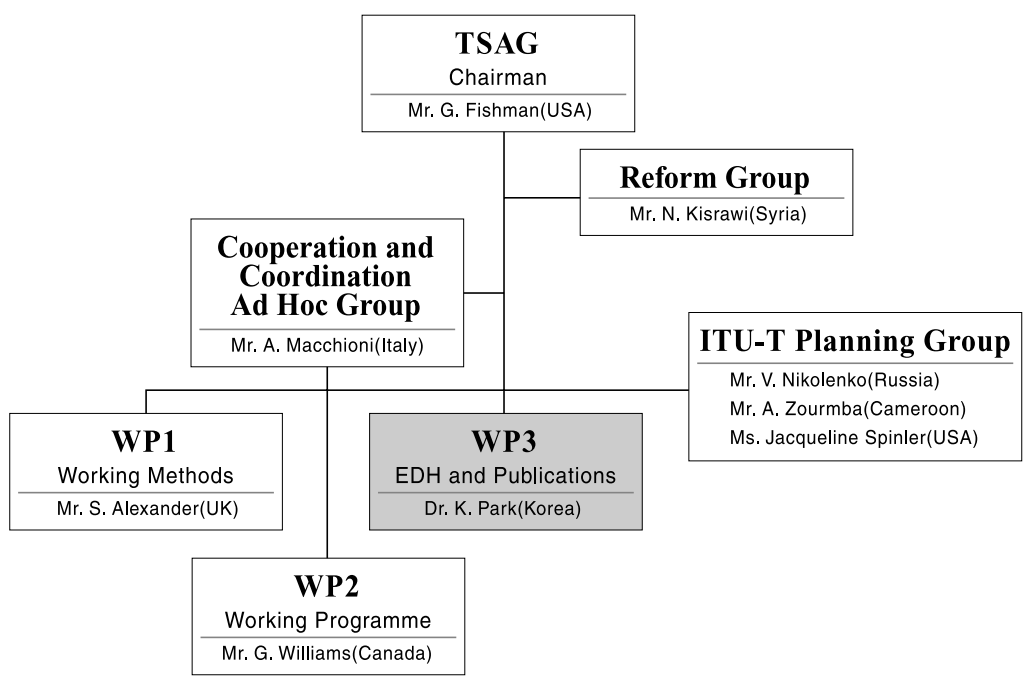
- 금번 회의는 지난 2000. 10월 ITU-T 총회 (WTSA-2000, 몬트리올)에서 위임받은 ITU-T 표준화활동에 대한 집행권한을 실행하기 위하여, 금번 연구회기(2001-2004) 동안의 전체적인 표준화활동 방향과 틀을 정하는 회의로, ITU-T 작업방법의 개선, 각 SG별 활동상황 및 계획보고, ITU Reform, 외부 기구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주제별 Working Group별로 이루어졌음.
- 다양한 주요 이슈 가운데에서도 특히, ITU의 중요한 현안인 ITU-Reform과 새로운 작업구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ITU-Reform의 경우 영국은 그 동안 주장해온 새로운 표준화기구(Forum)의 설립

- 전단계로 Pilot 포럼의 설립을 주장하였으나, 미국과 개도국의 반대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별도의 Correspondence Group을 만들어 설립논의를 지속키로 함.
- 또한,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ITU-T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전략그룹과 운영그룹 신설을 제안하였으나, 역시 미국과 개도국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함.
 - 또 다른 주요 사항으로, IMT-2000 & Beyond 특별 SG그룹을 비롯한 각 SG별 활동상황 및 계획보고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SG7과 SG10이 병합되어 SG17을 새로 설립하기로 결정되었음.
 - 특히, 정보보호분야에 관한 ITU-T 역할강화 주장이 제기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금년중 ITU-T 주관으로 Security 관련 워크숍을 개최키로 함.
 - 이번 ITU-T 연구회기중 TSAG 작업구조 및 책임사항(그림)





- 이번 ITU-T 연구회기중 TSAG 의장단



- Resolution 22, resolves 2(Montreal, 2000)와 관련하여, Operational Group과 Strategic Group의 설립에 관해 많은 토의가 있었으나, Strategy WP(chairman : Mr. Kisrawi (Syria)를 우선 설립하고, Operational Group 설립 건은 correspondence group으로 계속 토의를 하기로 하였음.

- Reform Group : ITU Reform과 관련된 이슈
-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Group : ITU 외부 기구와의 협력
- Strategic Planning Group : ITU 전략계획의 수정 등

2. 회의 주요 내용

1) 회의진행 구조

- 금번 회의는 주제별 작업반 및 Adhoc 그룹으로 구성되어 동시에 진행됨
 - Working Party 1 : ITU-T 작업방법 개선
 - Working Party 2 : ITU-T 작업계획
 - Working Party 3 : ITU-T의 전자적 문서처리(EDH) 및 Promotion

3. WP 1(ITU-T의 작업방법)의 주요 내용

1) TSAG의 작업구조

- 논의의 배경
 - 4년 주기로 개최되는 ITU-T 총회(WTSA)는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 따라, WTSA의 권한을 TSAG에 대거 위임하자는 논의가 지난 연구회기동안 이루어져 왔음.
 - 이를 반영하여 WTSA-2000에서 결의 22

를 통하여 '연구회기동안의 TSAG의 집행권한'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측에서 기존 TSAG의 작업구조를 변경하려는 논의가 제기됨.

● 논의의 쟁점

-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ITU-T에 한정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략그룹과 운영그룹을 신설하여 1998년 전권위원회(PP-98)의 결의 71(1999~2003의 ITU 전략계획) 및 결의 72(전략계획-재정계획-운영계획의 연계)에 입각한 ITU-T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하였음. 이와 아울러 유망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비전그룹'의 신설을 주장함.
- 미국은 상기와 같은 유럽측의 제안은 참여인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어렵고, 일부 소수그룹에 의해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공개적인 논의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TSAG 활동과 거의 중복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함. 또한, 미국은 유럽측의 제안이 WTSA-2000에서 TSAG에 집행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외부 표준화환경의 변화에 대해 ITU-T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음을 지적함.

● 결정사항

- ITU-T 내 새로운 조직으로서 전략/운영 그룹은 구성하지 않기로 함.
- 전략그룹 역할은 새로이 조직된 TSAG의 Strategic Planning Group을 WP로 하여 이와 관련된 임무(ToR)를 수행하도록 함.
- 운영그룹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장단 회의를 확대개편하여 추진코자 하는 주장이 있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향후 Correspondence Group을 구성하여 계

속 논의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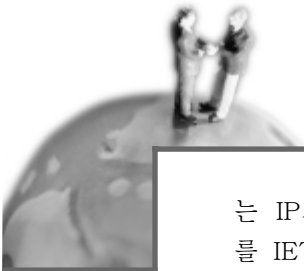
- 비전전문가그룹은 별도로 구성치 않고, 관련 전문가가 TSAG의 전략그룹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함.

2) 기술적 권고에 대한 새로운 권고승인절차(AAP)의 구현

- 금번 TSAG 회의전의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AAP 절차 내 흐름간의 구체적 소요기간이 결정됨.
- SG 또는 WP에서 권고초안의 동의(Consent)후 회원의 Comment를 받기 위한 ITU-T 웹 게시용 텍스트 완성기간을 최대 8주로 결정.
- Comment 접수후 SG 의장의 해결기간은 4주 또는 2주로 함.
- AAP 절차를 선택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짐.
- AAP 선택 : WP2&3/2, SG 4, 5, 6, 7 (X.121 X.125 제외), 9, 10, 12, 13, 15, 16, SSG on IMT-2000 & Beyond
- TAP 선택 : WP1/2, SG 3
- SG 11은 Standardization Domain에 따라 선택

4. WP2(작업계획)

- 각 SG의 활동상황 및 계획보고
- 「IMT-2000 & Beyond 특별 SG」에서는 무선인터넷, 이동·고정망의 융합, 번호이동성관리, 이동멀티미디어기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회의진행시 세미나 및 워크숍을 병행할 것임을 보고.
- 인터넷기반망 분야를 담당하는 「SG13」에서는 IP 관련사항, B-ISDN, GII 및 위성 관련 사항을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Question 11/13(공중망 내에서 운용되



는 IP기반 서비스 메커니즘)의 연구범위를 IETF에서 다루지고 있는 IP/MPLS에 근거한 망 진화문제를 포함토록 확장할 것이 요청되어 승인됨.

- 기타, SG2, SG4, SG7, SG11, SG12, SG13, SG15 등 각 SG별 활동상황 및 계획이 보고됨.

● SG 조직개편

- SG7(데이터망)과 SG10(전기통신 S/W)을 SG17로 병합하고, 논란이 되었던 표준연구과제 ASN.1은 SG17에서 수행하기로 함.

● 정보보호(Security) 분야 표준화의 적극적 추진.

- 프랑스에 의해 ITU-T가 망과 서비스에 대한 Security 관련 ITU-T의 역할강화를 주장하고, Security 관련 연구수행과 ITU-T 내 관련 연구의 조정 및 대외 기구와의 협력 등을 위한 새로운 그룹 신설을 제안함.

- 논의결과, ITU-T 내의 Security관련 표준화는 SG17이 Lead SG이 되어 추진하기로 하고, Security Workshop을 금년내에 개최하기로 결정됨.

● 기타, 인터넷 주소체계 관련 기구인 ICANN의 활동상황이 보고됨.

- 도메인 명을 다국적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IPv4와 IPv6를 포함하는 번호체계 검토 등을 보고함.

5. WP3(ITU-T의 전자적 문서처리, 홍보, 출판 및 과금정책)

- 본 WP는 지난 연구회기에 이어 재신임을 얻어 한국(박기식 박사, ETRI)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분과로서, 이번 ITU-T 회기에 할당된 임무에 따라 새롭게 작업구조를

개편함.

- 금번 회의에서는 ITU의 출판 및 과금정책, 전자적 문서 처리체계의 구현방법, ITU-T의 홍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음.

- 출판 및 과금정책 관련해서는, 2000.6월 이사회 결과에 따라 2001. 1월부터 회원국 및 부문회원에게 1개의 On-Line 권고 이용권을 주고, 기타회원 및 일반인에게 3번의 권고사용 Download 권리를 할당함.

- EDH 구현방법에 관해서는, 한국 및 Siemens에서 제안한 Web 기반의 토의그룹 설치와 관련하여, TSB에서 새로운 EDH 기능을 구현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함.

- ITU-T 홍보사항은 이번 연구회기에 새롭게 WP3에 부여된 매우 중요한 임무였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 논의하는 내용이어서 전반적인 추진전략만 개략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향후 Correspondence Group을 통해 상세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차기 TSAG 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향후 예정사항으로, AAP 관련 EDH 구현 사항, EDH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및 요구 사항개발, 공동 작업도구 개발, EDH 전략 계획, 무선LAN 관련사항 등을 E-mail reflector를 통해 지속적으로 토의하기로 함.

● 참고 : ITU-T Promotion(itu-t-promotion@itu.ch) 관련 TSAG email 등록정보

- Subscribe: <http://www.itu.int/ITU-T/tsag/edh/subscribe.html>
- 대상 : TIES 등록 사용자
- Rapporteur : Mr. Shibarta(KDDI, Japan)
- e-mail reflector for EDH : tsagwp3@itu.int

6. ITU-T Reform Group의 주요 논의내용

- 1) ITU-T내 Pilot Forum의 신설

- 논의의 배경
 - 98년 전권위원회(PP-98)에서는 ITU 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해 ITU 이사회에 작업 그룹을 설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1999년 이사회에서 Working Group on Reform (WGR)을 설치하였음.
 - WGR에서는 ① 현재의 ITU-T내에서 AAP 및 TAP 적용, ② ITU-T 권고를 기술표준 관련내용(AAP적용)과 규제표준 관련내용(TAP적용)으로 분리, ③ 기술표준 부문에 대해 ITU내 새로운 표준화기구(Standardization Forum)의 설립 등 3단계의 방안이 제시됨.
 - 영국에서 제안한 새로운 표준화기구(포럼)의 설립에 대해서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다수국의 지지를 받은 반면 미국, 이태리, 중국 등이 반대의견을 개진해 왔음.
- 논의의 쟁점
 - 영국을 비롯한 유럽측에서는 기술표준 부문의 새로운 기구설립 전단계로 Pilot Forum의 신설을 제안하고 이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PP-02에서 포럼을 상설기구로 전환할 것을 주장함.
 - 이에 대해 미국은 포럼의 설립이 정부간 성격을 규정한 ITU 헌장/협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AAP의 도입 등 ITU의 표준화작업이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포럼설립에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도국과 러시아, 유럽의 이탈리아 등도 포럼설립에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함.
- 결정사항
 -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논리적으로 분명한 미국의 입장이 우월한 지지를 받았으나, 유럽측에서 논의의 지속을 위해 포럼의 설립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Correspondence Group 구성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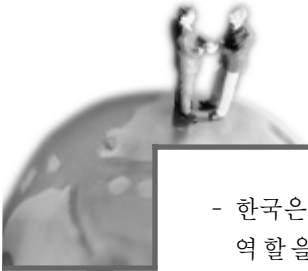
- 이에 따라, Correspondence Group의 임무(ToR)가 만들어졌으며, 이 그룹의 의견을 11월의 TSAG 회의에서 검토기로 함에 따라 4월에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WGR 회의에는 포럼설립에 대한 TSAG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함.

2) 기타

- 일본은 현재 ITU-T 표준화 작업의 구조(SG-WP-Rapporteur)를 단순화한 구조(SG에 프로젝트 중심의 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작업후 WG 종료)의 구성과 WTSA의 주기 단축을 제안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 캐나다에 의해 AAP 최종 단계에서의 단계적 투표(1단계: SMs 투표, 2단계: MSs 투표) 등이 제안되었으나, 장기적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ITU 개혁작업과 관련하여 계속 검토기로 함.

7.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Group

- 인터넷 관련 기구와의 협력
 - IETF에서 ITU-T에 유사 작업의 중복을 피하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전달함에 따라, 이를 TSB 국장으로 하여금 차기 SG 의장 회의 및 Area ITU 국장회의에 제출하여 표준화작업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도록 조치하기로 함.
- ISO/IEC JTC1과의 협력
 - A.23(ITU-T와 JTC1간의 공동작업 절차)의 내용을, 지난 WTSA-2000에서 결정된 ITU-T의 절차를 반영하여 개정토록 결정되었음.
- 포럼/컨소시엄과의 협력



- 한국은 XML 등 웹 관련 기술의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W3C(WWW Consortium)와 권고 A.4의 절차에 준한 통신과정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즉각 시행방안을 검토키로 함.
- ITU-T 문서에 타 표준화기구의 문서인용을 위한 일반절차(A.5)
 - 권고 A.5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상 표준화기구의 문서를 인용할 수 있는 방법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사실상 표준화기구의 개념정의의 모호성, 인용되는 문서의 품질문제, 그리고 지적재산권(IPR) 문제 등의 이유로 추후 논의키로 함.
 - 새로운 기구가 권고 A.5의 부기(Annex)에 삽입될 때마다 권고를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지적되어, 권고내 모든 부기를 삭제하고 ITU-T 웹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결정됨.

- 특히, ITU-T가 정보보호분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한 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도 관련 사업자 및 연구기관, 제조업체 등이 새로이 구성될 Security Worksho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가 필요함.
- 또한, 이번 회기부터 새로이 구성된 IMT-2000 & Beyond 특별 SG 역시 초기부터 적극적 참여로 선두그룹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WTSA-2000 결과로써 TSAG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자국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TSAG이 세계 표준화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고려할 때, 한국도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표단 구성과 활동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8. 맺음말 및 기타 의견

- 금번 회의에서 ITU Reform과 관련하여, 민간의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표준화 기구를 설립하려는 유럽의 주장이, 이에 반대하는 미국 및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나, 향후 Correspondence Group을 통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각 SG의 활동현황 및 계획보고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대응방향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 현재 ITU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술표준 영역과 규제표준 영역에 대한 국가회원의 역할 재정립(민간부문 회원에게 대폭 결정권 부여)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에서도 기술표준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부 산하조직을 통한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와 국가 주도적인 표준화 추진보다는 국책연구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체계를 재정립하여 추진하고,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는 필요한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